

# 광주, 전국 대표 탄소중립 실천 도시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3곳 선정 시민주도 에너지 전환 생태계 조성 마을단위 풀뿌리 실천운동 추진

광주시가 전국을 대표하는 탄소중립 실천 선도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발표한 탄소중립 실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탄소중립 실천 우수 지자체 22곳 중 탄소중립 추진체계와 기반 등을 조성하는데 앞장선 선도 지자체로 광주, 서울, 대구 등 3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정부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고 시민주도 에너지분권 기반확립과 소규모 그린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주요 핵심과제 삼아 추진 중이

다. 시는 특히 에너지전환 시민교육, 에너지 전환 마을 조성, 시민햇빛발전소 구축을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선순환 생태계’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도록 선도적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선순환 생태계는 에너지전환 활동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활동가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풀뿌리 에너지전환마을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마을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시민햇빛발전소를 구축해 지속가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자치구별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해 마을 단위 에너지 전환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에너지전환 선순환 생태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노력으로 행정안전부가 뽑은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선도한 ‘우리동네 그린 리더’로 광주

시 에너지 전환마을 중 ‘지원마을 에너지전환연대’ 차용문 대표와 ‘전환마을풍암’ 신태양 대표 등 2명이 최종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각 지역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며 이웃의 공감대를 높이고 있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탄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총 4명이 선정됐다.

신태양 대표는 에너지 디자인스쿨을 운영해 마을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과 함께 재생에너지 인식을 높이는 노력 등을 해왔으며, 차용문 대표는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방문 에너지진단, 청소년 햇빛 탐사 운영 등을 통해 마을의 에너지 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선도 지자체 선정은 지난 10월 대한민국 솔라리크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쾌거”라면서 “내년에도 에너지 전환 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공공하수도 관리 우수 기관 선정

### 환경부 평가...전국 광역단체 유일

광주시가 전국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평가에서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는 “2021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2001년부터 매년 전국의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 161개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류수 수질관리, 에너지 자립화,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찌꺼기 자원화, 악취관리 등 32개 항목에 대해 1차 서류 및 전문가 현장평가, 2차 환경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했다.

광주시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26개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광주시의 하수찌꺼기 자원화와 악취

관리 능력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차평동 제1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2018년 완료하고 일일 1만7000㎥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일일 3만2000㎥로 증산한 뒤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시설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해 연간 37억원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또 광산구 분덕동에 있는 제2하수처리장도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설물인 침사지, 농축조 등을 밀폐 포집해 악취제거 처리하는 시설 개선사업을 2019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제1하수처리장 악취배출 농도는 평균 2540배(희석배수)에서 165배로 94% 저감됐다.

장우현 광주시 하수관리과장은 “하수처리시설물의 꾸준한 시설개선과 운영인력 전문성을 강화해 방류수 수질개선 및 하수도 준설, 노후관로 등을 개선하고 하수도 서비스 수준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 시민 참여·ESG 경영 확대 나선다

### 시민초청 내년도 업무보고회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내년부터 시민 참여 경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0일 광주시 서구 마북동 본사에서 ‘시민초청 2022 업무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공사 운영 방향과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광주도시철도 팬클럽인 ‘빛고을 메트로’ 회원들과 공사 서비스 마케터, 역사권 시민대표 등 시민 20명이 참석했으며, 도시철도공사의 올해 성과와 시민소통·공감 ESG 경영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은 뒤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광주도시철도 운영에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광주지하철의 특색있는 테마역을 효과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제안 등을 내놨다. 공사는 이날 접수된 시민 의견을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공감과 소통의 시민 참여 경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윤진보 사장은 “광주도시철도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공동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그룹의 시민을 초청해 공공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펼치는 등 일방적 정책결정이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직원들이 10일 광주시 서구 마북동 본사에서 ‘시민초청 2022 업무보고회’를 개최한 뒤 참석 시민들과 내년도 사업 성공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아닌 시민 주도의 의제 설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최근 감사원이 주관한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A’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자체감사활동 서면심사는 자체감사기구 활동에 대한 내실화 정도를 매년 평

가하는 제도로 4개 분야 16개 지표로 심사한다.

이번 심사에서 공사는 자체 종합 감사를 통해 업무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내·외부 감사지적사항 집행도 향상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자체 감사의 수준을 높인 점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오늘부터 16개 주유소서 요소수 공급

광주시는 “13일부터 관내 16개 주유소에 지역 수입업체들이 베트남에서 긴급 수입한 차량용 요소수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유소는 서구 3곳, 북구 6곳, 광산구 7곳이며, 해당 주유소는 사·구와 화물협회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 시기는 주유소 별로 11곳은 13일부터, 1곳은 16일부터, 4곳은 18일부터 개시한다.

구입 가능 물량은 환경부의 긴급수급조정 조치에 따라 12월말까지 일일 기준 승용차는 10L, 화

물차건설기계 등은 30L이며, 주유소에서 선호하는 10L 소량 포장용기로 공급한다.

임천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요소수 공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해당 주유소를 방문하기 전에 전화 등을 통해 구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건설공사 현장점검 대폭 강화

### 현장기동반·품질관리 앱 운영

광주시는 “관내 건설공사 현장의 주요자재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 및 향상을 통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올해 현장기동반을 운영하며 92개 현장을 지도점검하고 38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보완 조치했으며, 품질관리(시합)계획 수립대상 공사현장 81개소에 대해서도 확인·점검을 완료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품질관리(시합)계획 수립·이행 여부 ▲품질관리 적정인력 배치 및 품질시험실 관리·운영실태 ▲품질시험·검사 이행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품질관리(시합)계획 대상인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및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또 관내 건설현장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 119’ 스마트폰 앱을 운영하고, 건설현장의 시공계획서를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레미콘 타설 등에 관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이정석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매년 대형 건설공사 현장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현장기동반 점검을 통해 건설시공을 유도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시 보건환경연 식품의약품 검사 능력 우수

### 식약처 평가 11개 전항목 최상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21 식품 의약품 숙련도 평가에서 전항목 ‘양호’ 판정을 받는 등 측정분석 능력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숙련도 평가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간 검사기관 등 27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식품 9항목, 의약품 1항목, 위생용품 1항목 등 3개 분야 총 11개 항목에 대한 숙련도 평가

를 양호, 주의, 미흡의 3단계로 구분해 평가했다.

연구원은 1차 평가에서 식품 중 비타민 티아민, 보존료, 납, 카드뮴과 의약품 중 보존료 항목을, 2차 평가에서는 식품 중 벤조피렌, 세균수, 대장균군, 식중독균, 유전자 재조합과 위생용품 중 포름알데히드 항목 등 총 11개 항목 모두에서 최상위 판정인 ‘양호’를 받았다.

조배식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품·의약품 분야 검사 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전문인력 양성, 분석장비 확충 등 측정분석 능력을 높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